

구직 기록

날짜: _____

성: _____ 이름: _____

30일 이상 실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 지난 30일 이내에 실직한 경우, 최소한 한 번의 구직 활동을 수행했거나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30일 이상 실직 상태였던 경우,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 세 번의 구직 활동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 세 번의 구직 활동은 지원한 직무 및 기타 구직 활동 건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구직 활동 및 지침에 대한 정의는 **2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연락한 사업체/고용주:

지원했던 직무, 참여했던 면접, 본인이 연락했던 사업체, 고용주에 대해 기재합니다.

문의 날짜	지원한 직무	사업체/고용주 이름	사업체/고용주 - 연락처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웹 사이트/URL, 팩스)

구직 활동: 사업체/고용주 문의를 제외하고 구직을 위해 했던 일을 기재합니다.

뒷면에서 활동 예시를 확인하십시오.

활동 날짜	수행한 활동(2페이지의 구직 활동을 나열합니다)

구직 기록 지침

“구직 중”이라는 이유로 보육비 지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보육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격에 대한 ACS 질문에 답변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신청 내역이나 자격 유지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벌금, 징역 또는 둘 모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 최초 자격 또는 자격 유지에 대해 사실을 감추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육비 지원 수령 또는 수령 유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감추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구직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내 뉴욕 주립 직업 센터(New York State Career Center) 방문
 - 직업 센터 전문가와의 만남
 - 직업 센터 직원으로부터 특정 업계 또는 지역 내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인력 시장 정보 획득)
 - 직업 센터 직원과 협력하여 본인의 기술을 평가하고 가능한 직업 및 일자리에 매칭(직업 매칭을 위한 기술 평가)
 - 교육 연수 참가
 - 직업 센터에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매칭을 받고 고용주와 후속 활동을 하는 것
2. 일자리 현장에 방문하여 합리적으로 공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주에게 직접 구직 신청서 작성
3. 공고 또는 구인 광고를 본 뒤, 또는 합리적으로 공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주에게 구직 신청서 또는 이력서 제출
4.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구직 세미나, 예정된 직업 네트워킹 회의, 취직 설명회, 채용 관련 워크숍 참석
5. 잠재적인 고용주와의 면접
6. 이전 고용주에게 구직 신청
7. 민간 채용 에이전시, 취업 알선 서비스, 조합, 학교, 칼리지, 대학교 취업 알선 사무소, 전문 기관 등록 및 상담
8. 전화, 사업자 명부, 인터넷 또는 온라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이용한 구직, 정보 획득, 추천 요청, 면접 예약
9.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 신청 및/또는 등록, 응시.